특집 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0주년 기념 심포지엄 II*

가족의 현실과 미래 – 다시 "가족"을 이야기 한다 (3)

한국한국가정법률상담소 60년 상담통계에 나타난 한국가정의 변천사

가족의 과거, 현재, 미래

가족의식의 변화와 남성의 변화

한국가족, 다양해지고 있는가?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현황과 비전

복지국가의 가족정책

변화하는 사회와 가족법의 역할 및 과제

가족의식의 변화와 남성의 변화

– 흔들리는 가족, 지척대는 남성 –

정 유 성

서강대 교육대학원 교수

들며 둘러보니: 달라진 세상, 바뀌는 살림

오늘날 발달하는 정보 및 기술과학을 타고 지구촌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의 삶은 물론 사람들끼리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개인화(individualization)'가 그 가장 두드러진 조짐으로 개인 주관 정체성부터 인간관계의 '친밀성(intimacy)', 그리고 세대 및 '젠더(gender)' 관계의 안정성 등 생활세계 곳곳은 물론 사람 존재의 속내까지 휘젓는 변화가 그것이다. 사람들은 지구촌화된 세상에서 떠돌이로 끊임없이 움직이며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 물선 일을 하며 살아간다.

살펴보니: 흔들리는 직업, 헝클어진 가족

유동적 현대에서 자본주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평생직장은 옛이야기가 된 지 오래여서 스스로 특정한 일, 그리고 노동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기가 까다로워졌다. 사람들은 밥벌이로서 '일자리'에만 매달리고, 그 일과 일터, 더불어 일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멀어지는 등 가장 중요한 삶의 테두리를 잃고, 뿌리내리지 못한다.

가족의 경우 산업화 시대에는 '핵가족'이 보편적인 가족 형태였지만, 산업화가 저물어가고 있는 요즈음 '1인 가족', '한부모 가족', '동거가족', '동성가족', '공동체 가족' 등

* 본소에서는 지난 6월 22일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두 번째 심포지엄 '가족의 현실과 미래 – 다시 "가족"을 이야기 한다'를 개최하였고, 이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을 순서대로 요약하여 게재한다.

여러 유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가족 자체가 바뀌었다기보다 오랜 가부장 전통이 무너지고 여성도 남성과 더불어 공적영역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여성이 도맡았던 사적영역, 재생산 영역에 틈이 생기고 가족의 기능, 의미가 달라진 탓이다. 게다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학적 변화에다 이혼율 증가와 다문화 사회의 대두와 같은 요인마저 겹치면서 가족문화는 더욱 헝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가족이라는 자리에 전통적 '재생산' 영역 뿐 아니라 '사회적 성성(gender)'과 같은 사회 및 인간관계 영역, '친밀성(intimacy)'과 같은 감성영역에 이르기까지 변화와 혼란이 한창이다(벡, U. 외, 2010).

짚어보니: 보살핌과 돌봄의 위기, 그리고 가족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변화에 제대로 마주하지 못해 생겨나는 사회전반의 위기, 특히 육아나 노인 부양과 같은 '보살핌과 돌봄의 위기'에서 온다. 전통적으로 가족, 특히 일하는 여성들에게 이중, 삼중으로 짐 지우면서 꾸려나갔던 임시방편으로는 한계가 뚜렷해 이제 보살핌과 돌봄 노동의 시장화 또는 사회화가 일어난다. 여기에 상품화된 보살핌의 노동시장에 주변화 된 여성 노동력이나, 지구화된 경제체제에 얽힌 약한 고리인 제3세계 여성 노동력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보살핌과 돌봄으로 가족 안에서 생겨나는 소중한 감정의 잉여가치가 사라지고, 이런 보살핌이나 돌봄에서 스스로 단절되거나 소외된 남성들은 자아성숙, 정체성 형성에 치명적인 제한을 받게 되며 여성들 또한 여성들끼리, 또는 따로, 가르고 나뉘어 '분할하/되고 통치하/되는(divide[d] and rule[d])' 엇걸림에 빠지게 된다.[1]

이는 결국 이른바 가족의 위기 및 '해체', 또는 새로운 문명전환에 따른 '가족문화의 변화'의 원인이며 결과다. 이제 '가족 이후의 가족(family after family)'라는 화두로 가족을 처음부터 거듭 보고, 다시 만들어가야 할 정도다(벡, U. 외, 2010).

돌아보니: 한국 가족, 그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

압축적 성장(장덕진 외, 2015)과 졸속한 변화를 거듭해 온 한국사회에서 가족문화의 변화 또한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이라는 '오래된 새 모순, 새로운 옛 모순'에 엇걸릴 수밖에 없다. 서구 산업사회는 산업화, 도시화라는 근대화 과정에서 개인의 탄생과 나란히 핵가족이라는 틀이 생겨났다. 반면 한국사회는 근대화 과정 자체가 식민지, 내전, 억압적 산업화 등으로 뒤틀리고 찢겨진 채 서둘러 내달아 왔으며 그 힘든 세월을 살아남으려 애쓴 주인공은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었다. 그나마 압축성장도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으며 무엇보다 '노동서사'가 망가졌다. 이럴 때 마지막 보루가 가족이다. 바깥일에 파묻혀 온 한국 남성들에게 특히 그렇다. 그러나 가족은 지금 대전환의 한복판에 자리한다. 어떤 통계를 보아도 한국사회 가족문화의 변화는 뚜렷하다. 그 크기부터 '최소화'하고 있으며 "가족세대 구성이 단순해지고 맞벌이 가족 증가, 가족분가 및 이혼·사별의 증가는 가족 결속력 약화와 함께 가족형성부터 가족관계 및 가족기능에 이르기까지" 일찍이 찾아보기 어려운 전환이 가족문화 전반에 일어나고 있다(김유정, 2016). 한 편 '전

1) 이전에 다문화 사회 대두와 관련된 보살핌과 돌봄 위기를 다루었던 내용을 옮겨 온 것이다(정유성(2012). 나아가 돌봄 노동의 '계토화'까지 우려되는 실정이거니와 가정에서 전업주부가 도맡아 하던 전통적 유형이 그 구실을 다하자 이를 갈음하는 현대적 유형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취업여성이 외부 지원 없이 임금노동과 가족 돌봄을 동시에 수행하는 흔히 볼 수 있는 후기 현대적 모델이 그것이다. 이것은 제도적 지원 같은 사회적 또는 노동시간 조정 같은 기업 차원의 지원 없이 기껏해야 남편의 도움 정도에만 기대며 수행하는 돌봄 노동으로서 대표적인 여성역할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이를 따르지 못하는 '정체된 젠더 혁명(stalled gender revolution)'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도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노동시장이나 과정의 변화 없이 유급노동을 위해 가족영역을 축소하여 자녀 보살핌이나 노부모 돌봄은 오로지 시설에 맡기게 되는 '차가운 현대적 모형', 그리고 공공영역에서도 보살핌과 돌봄이 중요한 섹터가 되어 사회화된 서비스가 확대되며 동시에 가족 안에서도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보살핌과 돌봄에 동참하는 '따뜻한 현대유형', 곧 남녀평등한 평등주의적 모델이며 돌봄을 삶의 핵심적인 부분이자 중요한 노동으로 인정하는 것 등이다(혹실드, 조흥식 외, 2013: 9에서 재인용).

통적 가족주의'와 '탈 근대적 개인화'의 충돌 속에 보살핌과 돌봄의 위기와 관련된 담론에서는 가족이 "위험사회의 도피처가 아니라 위험사회의 진원지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문제의식"(김혜영: 함인희, 2014. 107에서 재인용)도 있다.[2]

훑어보니: 나는 세상, 뛰는 가족, 기는 남성

앞서 돌아본 대로 한국의 남성은 마지막 보루인 가족에 고단한 삶을 기대고자 한다. 하지만 그 가족은 이미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데 당사자인 남성은 아직 그 변화를 인지하지조차 못하고 있다. 또 여전히 전형적 산업사회 게임의 법칙인 '경쟁-경력-경화'(Konkurrenz-Karriere-Kollaps:Br?ndel/Hurrelmann, 1999)에 매어 바깥일 성공과 그 빌미인 가족 부양에서 존재의 이유를 찾는다.

뜯어보니: '가족에 저주받은 사람들'[3]

이는 남성 잘못만은 아니다. 사회의 병리는 너무도 긴 노동시간, 안전하지 못한 노동환경, 무엇보다 가족이나 육아에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직장문화부터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까지 도움 되는 것이 없다. 그렇다고 가족과 관계 회복하자니 어디부터 비롯해야 할지 알 수도 없다. 무엇보다 가족문화 전반에 구조, 상황, 조건은 달라졌지만 남성들 의식, 관행, 일상은 바뀌지 않고 그 사이 격차, 갈등, 공백만 무성하다. 이를테면 가정에서의 대화단절, 가사노동에 대한 '머리 따로, 손발 따로' 노는 이중성 및 지체, 그리고 분열현상이 그렇다.[4]

나며 찾으니: 보살핌과 돌봄이라는 구원

한국사회는 이런 저런 위기의 와중에 '가족해체' 또는 '가족문화의 변화'라는 현실에 갈팡질팡하고 있으며, 그 원인과 결과인 '보살핌과 돌봄의 공백'에 대해 정책이 난무하고 대책 마련에 바쁘기만 하다. 하지만 남성의 근본적인 삶의 태도변화, 곧 사람들의 본새를 바꾸지 않고는 위기를 이겨내기는커녕 멈추기조차 어렵다.

요컨대 보살핌과 돌봄을 여성들에게만 맡기다가 남성들은 대부분 보살핌과 돌봄을 통해 얻는 관계와 존재의 성장에서 스스로 밀려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살림의 바탕을 '돌봄 사회'로 바꾸고 그에 걸맞은 삶의 방식을 만들어 가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바탕이 되는 자리인 가족, 작은 데서부터 섬김으로 보살핌과 돌봄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

2) 가족담론에 관련한 저간의 흐름에 대해서는 함인희(2014)가 정리한 내용에 힘입은 바 크다. 특히 서구사회에서 탈현대 맥락에서 진행되는 가족위기 담론이 이 땅에서는 아직도 전통과 근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은 시사적이다. 다만 여기 '탈현대적 요소'가 포함되며 이것들이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으로 병렬, 착종된다는 점만 포함시키면 좋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모순 구조 속에 한국 특유의 '뿌리 너무 깊은 나무'인 가족 중심주의적 의식, 그리고 '샘이 너무 얕은 물'인 '완강한 가족주의' 아비투스(임지현, 2000)와 까지 깊이 있게 천착하면 의미 있을 것이다.

3) 감히 '대지에 저주받은 사람들'이라는 파농(Fanon, 2004)의 명저 제목을 패러디한 것이다. 당연히 주인이면서도 온갖 상황과 정황 때문에 쫓겨나고 이윽고 그 주관조차 헝클어지고 망가진 식민지 시대 주민들의 시난고난한 팔자와 비슷한 꼴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싶어서다.

4) 2016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9~24세의 국민 중에 청소년(9~24세) 6.7%가 아버지와 대화를 전혀 하지 않으며, 절반이 넘는 56.5%가 아버지와 일주일에 한 시간도 채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어머니 경우 41.9%)고 한다. 또 2015 일 · 가정 양립지표에 따르면, 2014년 맞벌이 부부의 1주일 노동시간은 남성 46.8시간, 여성 41.4시간으로 남성이 5.4시간이나 더 일하고 있어 평균 하루 1시간씩 더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통계에 따르면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2004년 32분에서 2014년 40분으로 그야말로 조금 늘어난 정도였다.(http:// hikostat.kr/2940) 무엇보다 문제는 가사에 대해 남편과 부인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47.5%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지만, 실제로 공평하게 분담하는 남편은 16.4%에 불과했다(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ewswatch_kr&logNo=220561367925)는 것이다.